

13강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4)

오늘의 포인트

- 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 기독교의 배타성을 이해함
- 보혜사에 대한 바른 이해
-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인가?

상황

불안한 제자들

(요 13:21)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 13: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 13:3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 26:32)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믿음—궁극적 위로

(요 14:1~2a)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취사선택할 수 없다.
-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 예수님의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이고, 실재를 제공하는 지상 최대의 위로다.
-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가 영원을 보낼 처소를 보장한다.
- 예수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위로다.

기독교의 약점: 배타성(?)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배타적일 수 밖에 없는가?

타락한 인간의 실존: 타락한 아담이 잃어버린 세 가지

1. 하나님과의 교제/관계
2. 창조주를 아는 지식(엡 4:19; 롬 3:11)
3. 영적 생명(엡 2:1; 요 5:24)

예수님의 선언: 인간이 필요로 하는 세 가지(요 14:6)

1. 하나님과의 화해: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그 길이다.
2. 깨우침: 다른 진리는 없다. 내가 그 진리다.

→(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 중생: 다른 생명은 없다. 내가 그 생명이다.

→ (요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적용/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방법

이 말에 동의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을 즐기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돈을 추구하라. 성공을 추구하라. 세상의 안락을 더욱 추구하라. 자식의 출세를 추구하며 살라. 그리고 교회를 다니라. 봉사도 하라. 직분도 얻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들에게 싸구려 위로와 값싼 은혜를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나이스하지도, 그렇게 쿨하지도 않으시다. 주님은 “나, 오직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다. 오직 나만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신다.

인간의 본성적 갈망: 하나님을 보는 것

(요 14:8)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의 대답

(요 14: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의 책망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를 책망하신다.

‘본다’는 말의 의미

빌립의 기대

보는 것, 감각적 경험, 큰 것
‘보여주옵소서’= 전시하다, 증거를 제시하다

‘본다’를 의미하는 단어들

1. 시야에 들어오다 βλέπω: (요 20:5)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 하였더니
2. 의식적으로 쳐다보다 θεωρέω: (요 20: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3. 이해심을 가지고 보다 ὁράω: (요 20: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는 것

1. 깨닫는 것이 보는 것이다(고후 3:18).

-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없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2.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요 11:40; 고후 5:7).
- (요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 (고후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안--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내주하심 (요 14:10a)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2. 예수님의 말씀 (요 14:10b)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3. 예수님의 일 (요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

→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선교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2.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 유다가 나간 뒤,
 -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다.

[기도의 조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 (요 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 'Name it and claim it movement'
-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주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
- 주님의 인격과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 기도의 응답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다.

사랑과 순종

-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사랑하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기도의 결과]

(요 14:13,14)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13,14)
 - 모든 선교의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실패하는 기도는 없다.
2.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13)
 -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여 기도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다른 보혜사

(요 14:16~17)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의 의미

보(保)혜(惠)사(師)

- 보(保) = 지키고 편안하게 하고 돕는다
- 혜(惠) = 은혜를 베푼다
- 사(師) = 선생님
- 보혜사 = 지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선생님

다양한 번역들과 헬라어의 의미

- Helper(ESV, NASB), Comforter(KJV), Advocate(NRSV), Counselor(NIV, NLT, RSV)
- 기운을 북돋아 주는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분, 후원자, 조언자, 변호인, 동지, 노련한 친구
- 헬라어 παράκλητος 의 의미: 헬라세계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전문적 변호사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대변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는 증인으로서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 단어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전문적 변호사를 가리키는 advocatus로 번역되었고 여기서 영어 advocate 이 파생되었다. 이 단어가 17세기에 KJV의 영어로 번역될 때 Comforter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17세기에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함께 있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의미했다. 정서적 차원보다 실제로 힘을 북돋아주는 면이 강조된 실제적인 의미로, 법정적 상황에서 사람을 도와 이런 저런 지시와 가르침을 주

는 상담자를 가리키는 면이 많았다. 조력자를 의미하는 Helper는 낮은 위치에서 돕는 자 정도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어주는 분을 가리킨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적대적인 세상에서 보호하고 변호하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또 다른’의 의미

- 완전히 다른 종류, 다른 성질을 가리키지 않고
- 똑같은 종류, 같은 성질을 가진 또 하나(한분)을 의미
-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다.

성령님 = 진리의 영

1. 영감(inspiration)— (딤후 3:16; 요 14:26)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 조명(illumination)— (요일 2:20,27)
3.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적용해주심(히 4:12)

세상과 교회의 차이:

- (요 14:17)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 (요 14:17)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 ‘계시겠음이라’ = 장소나 거주지 보다 강한 인격적 관계를 표현

누가 보내시는가?

- (요 14:16)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독자적인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

- (요 14:18~20)
-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 재림 때 오심을 말씀하셨다.
2. 부활 후에 오셔서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19)
3.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19)

(마 28:20b)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문맥상)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21~24)

-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21).
-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24).

1.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다(15:12; 13:34).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2. 이 계명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다.

3.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4.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21,23; 롬 5:5).

(요 14:21)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 오직 신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다(19,22).

(요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요 14: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6.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 가지 평안

객관적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관적 평안 (하나님의 평화)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

(요 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 D.A. 카슨, “제자들은 감정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께서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를 원했을 것이다.”

-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으심으로 더 낮은 위치를 취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주님이 이제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만큼 평안을 누린다.

마귀가 흔들 수 없는 평안

(요 14: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인 오겔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 사탄 = 이 세상의 임금 :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 밑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마귀가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와 체계를 붙들고 있다는 의미다.
-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고소할 아무 권한이나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비록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죽이는 일이 임박했어도 주님의 평안은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마귀가 흔들 수 없는 평안임을 보여주신다.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

(요 14: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 십자가 지심
-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주님은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

(요 14: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3: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적용

- 주님은 당신에게 궁극적, 실제적 위로와 평안인가?
-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라.
- 기도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라.